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석

정의철* · 김진욱**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소득불평등 요인을 가구특성별로 분석하는데 있다. 소득불평등 지수로 대수편차평균을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학력,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집단내 불평등도와 집단간 불평등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균등화된 소득에 기초하여 1999년, 2002년, 2005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집단간 불평등도보다는 집단내 불평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변화에서도 집단별 소득불평등 자체의 변화가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집단간 소득불평등 보다는 집단내 소득불평등 해소에 주력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유층의 세원 확보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에 따라 1998년 큰 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이듬해인 1999년에도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지속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보면 2002년에는 어느 정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지나치게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부유층의 소득이 상승하고 빈곤층은 소외됨으로써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국민의 정부의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지만 과연 2002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에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불평등의 악화 또는 개선이 어떤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은 가구 특성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가구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을 요인별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소득불평등 해소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가구 특성에 기초하여 소득불평등 지수를 분해하여(decompositions of inequality indices)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Mookherjee-Shorrocks(1982)를 들 수 있다. 그들은 1965-1980년 사이에 가구주 연령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분해한 결과 집단내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Jenkins(1995)는 1971-1986년 사이의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8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 원인은 Mookherjee-Shorrocks은 그룹화된 자료(grouped data)를 사용한 반면에 Jenkins는 원시자료(micro data) 사용하였기 때문이다.¹⁾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의 요인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2000년대 들어 엔트로피 지수를 통한 소득불평등 요인 분석을 한 몇 가지 연구가 눈에 띄는데, 정진호 외(2002)의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를 경제위기 전·후를 기준으로 가구주 근로소득을 통해 가구주 학력과 연령별로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김성용·이계임(2002)의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농업가구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유형별로 분해하여 엔트로피 지수의 불평등도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여유진 외(2005)의 연구에서는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자료」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자료」를 통해 엔트로피 지수를 분해하여 가구주 학력별·연령별로 집단내 불평등(intra-inequality)과 집단간 불평등(inter-inequality)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의 동태적 변화, 그리고 2000년과 2003년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6년과 2000년의 통계청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자료」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 동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2003년의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2개 연도와는 조금 상이한 이질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여유진 외의 연구에서는 3개 연도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석하여 결과만 제시하였지 정책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가구의 특성별로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을 분해하고 집단내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계층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첫째,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엔트로피지수를 통해 전가구의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가구의 특성별로 집단내 소득불평등과 집단간 소득불평등의 기여도를 측정하며, 셋째, 가구 특성별로 집단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여 최근 소득불평등이 가장 크게 악화된 계층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의 연령, 성별, 학력과 가구의 취업자수이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니계수는 가구 특성별로 소득불평등 발생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중복효과(overlapping effect)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하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1) Jenkins(1995, p. 60)

2) 가구주 연령에 의거하여 계층을 분류하여 분석한 Kim(1994)의 결과에 의거하면 지니계수의 중복효과는 전체 지니계수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학적인 도출과정과 1985년부터 1991년까지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Kim(1994, pp. 229-233) 참조.

특성별로 소득불평등 발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엔트로피 지수 가운데 대표적인 대수편차평균 (Mean Logarithmic Devi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II. 이론적 모형

1. 대수편차평균 지수의 분해

전체 소득불평등을 가구 특성(가구주 연령, 성별, 학력 및 가구의 취업자수)에 따라 각 집단(k 로 표시)을 분류하여 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과 집단간에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불평등지수는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이다. 엔트로피 지수 가운데 동태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대수편차평균이 이용되는데 대수편차평균을 집단내(within) 소득불평등과 집단간(between) 소득불평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MLD(y; N) &= \frac{1}{N} \sum_{i=1}^N \ln \frac{\mu}{y_i} \\ &= \sum_{k=1}^K (v_k) MLD_k + \sum_{k=1}^K \left(\frac{N_k}{N} \right) \ln \left(\frac{1}{\lambda_k} \right) \\ &= MLD_W + MLD_B \end{aligned}$$

(1)

여기서, MLD 는 대수편차평균, MLD_k 는 k 집단내의 대수편차평균, $v_k = \frac{N_k}{N}$ 는 k 집단의 가구가 전체 모집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lambda_k = \frac{\mu_k}{\mu}$ 는 k 집단 평균소득(μ_k)의 모집단 평균소득(μ)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대수편차평균을 이용하면 가구특성이나 가구주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소득불평등을 집단내 소득불평등(MLD_w)과 집단간 소득불평등(MLD_B)으로 구분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동태분석(dynamic analysis)을 하기 위해 Mookherjee-Shorrocks(1982)은 최초로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하였다.

$$\begin{aligned}
\Delta MLD(y; N) &\equiv MLD_{(t+1)} - MLD_{(t)} \\
&\cong \sum_{k=1}^K \bar{v}_k \Delta MLD_k && A\text{항} \\
&+ \sum_{k=1}^K \overline{MLD}_k \Delta v_k && B\text{항} \\
&+ \sum_{k=1}^K [\bar{\lambda}_k - \overline{\ln(\lambda_k)}] \Delta v_k && C\text{항} \\
&+ \sum_{k=1}^K (\bar{\theta}_k - \bar{v}_k) \Delta \ln(\mu_k) && D\text{항}
\end{aligned}$$

(2)

여기서, Δ 는 비교연도인 (t+1)기와 기준연도인 (t)기의 변화분을 나타내며, $\bar{v}_k = \frac{(v_k)_{(t+1)} + (v_k)_{(t)}}{2}$ 로 비교연도인 (t+1)기와 기준연도인 (t)기의 k집단의 가구가 모집단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산술평균을 나타낸다. 다른 변수의 경우에도 변수위에 선(bar)으로 표시한 것은 비교연도 값과 기준연도 값의 평균을 나타낸다. 그리고 $\theta_k = v_k \lambda_k$ 이다

식 (2)는 근사치(approximation)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자료를 대입하여 분석하는 경우 이러한 근사치 공식이 집단별로 집단의 가구비율이 일정할 경우의 집단내 소득불평등 자체의 변화(A항), 집단내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 가운데 집단 구성 비율(share)의 변화(B항), 집단간 평균 변화에 대한 집단 구성 비율의 변화(C항), 그리고 집단간 평균소득의 변화(D항)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³⁾ 식 (2)를 사용하고 있다.

2. 가구 특성과 분해 요인의 관계

연령, 성별, 학력 등 가구주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의 취업자 수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취업자 수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

가. 가구주 연령

동태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변화하면 청년 노동자와 노년 노동자의 상대적인 수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임금이 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임금 상승률도 변함으로써

3) 대표적으로 Jenkins(1995), 여유진 외(2005) 등을 들 수 있다.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거나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계층이 많을수록(적을수록) 소득불평등은 악화(개선)된다.

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성별이 변하는 것은 대체로 가구의 구성 자체가 변하는 것으로써 가구주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주의 성별 변화는 2차 노동력(주부, 18세 미만 자녀 혹은 65세 이상 노년층 등)의 경제활동참가가 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데, 2차 노동력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취업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다. 가구주 학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력이 취업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학력은 소득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취업자수

취업자 수의 변화는 가구의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취업자 수의 변화는 2차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구내 2차 노동력의 취업으로 가구 소득은 증가할 것이므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 둘째, 가구주의 소득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2차 노동력이 취업한 경우 2차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종에 취업이 어려우므로 이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가구내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가구의 전체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구의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식 (2)의 각 항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구의 특성과 동태분석의 관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가구의 특성	분해의 주요 항목
가구주 연령별 분배 변화	가구주 연령	B항, C항, D항
가구주 성별 분배 변화	가구주 성별	B항, C항, D항
가구주 학력별 분배 변화	가구주 학력	B항, C항, D항
임금 소득불평등 변화	취업자수	A항

출처: Jenkins(1995), p. 33.

III. 가구 특성별 소득불평등 현황

1. 소득의 정의 및 구간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로써 가구별 자료와 개인별 자료를 합성하여 도출하였다. 가구주에 대한 특성(연령, 성별, 학력)은 가구별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취업자 수는 개인별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해마다 동태분석을 할 수 있으나, 일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일정 기간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연도(1999년), 그 이후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한 연도(2002년),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2005년)를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3개 연도를 설정하였을 때는 분석 주기가 규칙적으로 3년이 된다. 대수편차평균은 대수합수를 사용하므로 소득이 영(0)인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각 연도별 자료 가운데 설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므로 소득이 영인 가구와 미답변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한 3개 연도의 표본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연도별 표본 수

연도	1999	2002	2005
표본 수	4,248	4,125	4,699

한국노동패널에서는 가구 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장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은 이러한 소득을 전부 합한 총소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가구별로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상이하므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인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가구 균등화된 소득(equivalized income)⁴⁾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대수편차평균)을 도출한다.

2.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 추이

대수편차평균에 의한 전체 소득불평등도는 1999년(0.312)보다 2002년(0.337)에 더 악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1999년 수준을 넘는 0.307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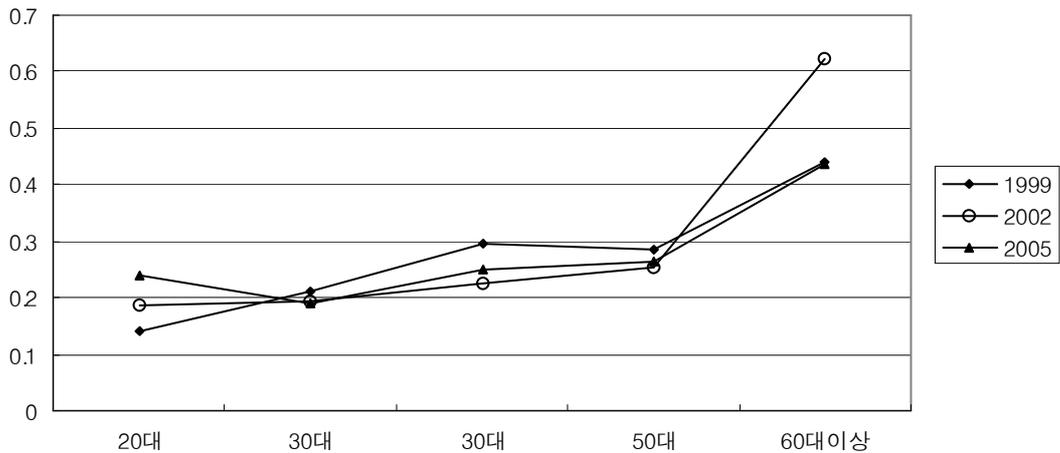
가구주 연령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94%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집단간 소득불평등은 6% 이하에 불과하였다. 집단간 소득불평등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항상 양(+)으로 나타나고,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음(-)으로 나타남으로써 6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가 다른 집단보다 훨씬 소득이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집단내 소득불평등과 집단간 소득불평등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분해한 두 소득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02년에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줄어들고 2005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단내 불평등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과 비교하여 2002년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원인은 <그림 1>에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2005년에는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큰 폭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60대 이상 계층의 소득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표 3>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가구주 연령		전체 불평등	집단비중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연소득(천원)
1999	20대		0.04849	0.14169	-0.04469	1,063.87
	30대		0.26059	0.21175	-0.05107	1,070.69
	30대		0.28343	0.29674	-0.11976	1,146.82
	50대		0.19962	0.28402	-0.08042	1,102.58
	60대 이상		0.20786	0.44110	0.40087	681.37
	전체	0.31239		0.29454 (94.3)	0.01785 (5.7)	1,017.38
2002	20대		0.04945	0.18652	0.04471	1,353.65
	30대		0.22303	0.19338	-0.14320	1,633.48
	30대		0.27636	0.22688	-0.06425	1,509.47
	50대		0.19879	0.25446	-0.07461	1,525.20
	60대 이상		0.25236	0.62301	0.30271	1,045.82
	전체	0.33694		0.32286 (95.8)	0.01408 (4.2)	1,415.54
2005	20대		0.04724	0.23950	0.11515	1,499.70
	30대		0.23175	0.18991	-0.11681	1,891.24
	30대		0.24793	0.25108	-0.07518	1,814.13
	50대		0.20983	0.26365	-0.15215	1,959.25
	60대 이상		0.26325	0.43626	0.34827	1,187.86
	전체	0.30722		0.28774 (93.7)	0.01948 (6.3)	1,682.73

$$4) \text{ 균등화된 소득} = \frac{\text{가구총소득}}{\sqrt{\text{가구원수}}}$$



<그림 1>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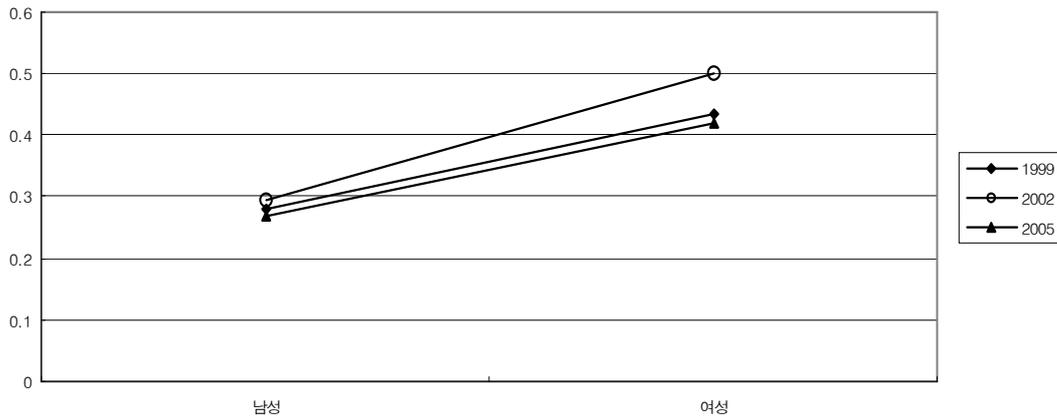
3. 가구주 성별 소득불평등 추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번째 가구 특성인 가구주 성별 분석에 의하면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가구 특성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 이상이었으며, 집단간 불평등은 4%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녀 집단간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가구 특성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집단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가구 가운데 여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서 15.3%, 18.8%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남성 사이의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여성에 대한 집단내 소득불평등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99년보다 2002년에 두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고, 2005년에는 두 집단 모두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소득불평등은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추계되어 여성의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양(+)으로 도출되었다.

<표 4> 가구주 성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가구주 성별	전체 불평등	집단비중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연소득(천원)	
1999	남성		0.85334	0.28087	-0.04980	1,069.33
	여성		0.14666	0.43300	0.35258	715.08
	전체	0.31239		0.30318 (97.0)	0.00921 (3.0)	1,017.38
2002	남성		0.84703	0.29280	-0.05832	1,500.55
	여성		0.15297	0.50005	0.40426	944.84
	전체	0.33694		0.3245 (96.3)	0.01244 (3.7)	1,415.54
2005	남성		0.81230	0.26841	-0.06267	1,791.56
	여성		0.18770	0.41804	0.32835	1,211.76
	전체	0.30722		0.2965 (96.5)	0.01073 (3.5)	1,682.73



<그림 2> 가家主 성별 소득불평등 추이

4. 가家主 학력별 소득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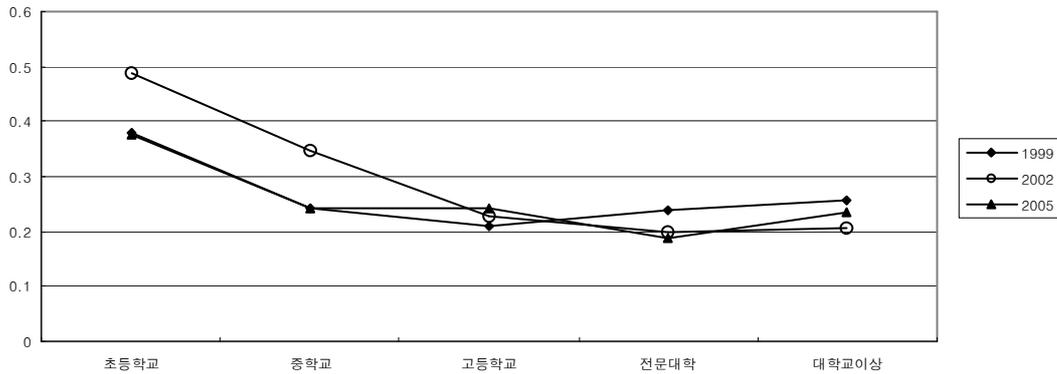
가家主 학력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 5>에 의하면 다른 가주의 특성에 관한 변수보다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2002)~15.9%(1999)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집단내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1999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 이루어진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은 상태로 U자형을 보였다. 200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가주 집단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으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집단의 소득불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소득불평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다른 집단과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家主 가주의 소득불평등은 2002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소득불평등은 1999년과 2002년에는 중학교 이하 집단은 불평등도가 양(+)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 접어들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家主 가주 집단이 양(+)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별 임금격차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5> 가구주 학력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가구주 학력		전체 불평등	집단비중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연소득(천원)
1999	초등학교		0.22363	0.37774	0.51434	608.28
	중학교		0.15184	0.24319	0.20186	831.41
	고등학교		0.37194	0.20857	-0.00628	1,023.78
	전문대학		0.05508	0.24035	-0.17872	1,216.46
	대학교이상		0.1975	0.25618	-0.42487	1,555.96
	전체	0.31239		0.26281 (84.1)	0.04958 (15.9)	1,017.38
2002	초등학교		0.21697	0.48731	0.49941	859.07
	중학교		0.15588	0.34658	0.11715	1,259.06
	고등학교		0.36364	0.22856	-0.00268	1,419.35
	전문대학		0.06521	0.19719	-0.24028	1,800.01
	대학교이상		0.19830	0.20758	-0.35261	2,013.99
	전체	0.33694		0.29689 (88.1)	0.04005 (11.9)	1,415.54
2005	초등학교		0.19366	0.37468	0.52032	1,000.10
	중학교		0.13939	0.24328	0.23874	1,325.35
	고등학교		0.35625	0.24196	0.01687	1,654.59
	전문대학		0.07789	0.18788	-0.09054	1,842.19
	대학교이상		0.23282	0.23532	-0.37740	2,454.25
	전체	0.30722		0.26209 (85.3)	0.04514 (14.7)	1,682.73



<그림 3> 가구주 학력별 소득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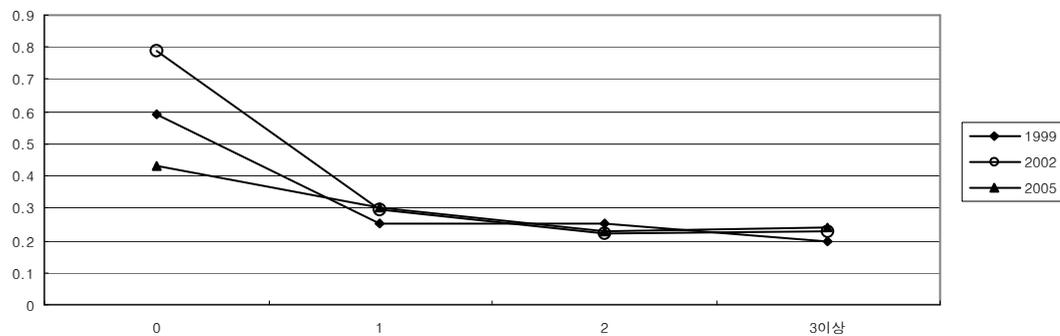
5. 취업자수에 따른 소득불평등 추이

취업자 수에 의거하여 소득불평등을 분해해보면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 94.9%에 이르던 것이 2005년에는 92.1%로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집단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 취업자수에 따른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취업자수	전체 불평등	집단비중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연소득(천원)
1999	0		0.14266	0.59475	0.43573	658.03
	1		0.44821	0.25382	0.02030	996.93
	2		0.31615	0.25221	-0.13704	1166.8
	3이상		0.09298	0.19624	-0.13047	1159.17
	전체	0.31239		0.29659 (94.9)	0.0158 (5.1)	1017.38
2002	0		0.11200	0.79061	0.64922	739.55
	1		0.36146	0.29473	0.03554	1366.11
	2		0.33527	0.22336	-0.08061	1534.38
	3이상		0.19127	0.22517	-0.18104	1696.48
	전체	0.33694		0.31304 (92.9)	0.02391 (7.1)	1415.54
2005	0		0.12407	0.42917	0.68772	845.95
	1		0.31900	0.30011	0.00064	1681.65
	2		0.30517	0.23001	-0.06732	1799.92
	3이상		0.25176	0.2413	-0.14968	1954.43
	전체	0.30722		0.27992 (92.1)	0.0273 (8.9)	1682.73

특기할 만한 사실은 2002년에 취업자가 없는 실업자 가구 수가 14.3%에서 11.2%로 줄어들었으나 이들 가구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실업자 가구 사이의 소득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취업자 수가 2이상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전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집단간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어, 취업자가 1인 이하인 가구는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큰 것으로 그리고 2인 이상 취업 가구는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적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4> 취업자수별 소득불평등 추이

IV. 가구 특성별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제3절에서는 1999년, 2002년, 2005년 시점에서 가구특성별(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성별 및 취업자 수) 소득불평등 정도를 대수평균편차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은 식 (2)에 기초한다. 식 (2)는 두 시점($t+1$ 기와 t 기)사이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네가지 항목으로 분해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ookherjee-Shorrocks에 따르면 식 (2)의 A항과 B항은 집단내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C항과 D항은 집단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의 변화는 집단별 소득불평등도 자체 (ΔMLB_k)의 변화와 집단구성 비율의 변화(Δv_k), 그리고 집단간 소득의 변화($\Delta \ln(\mu_k)$)로 나누어져서 설명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를 1999년과 2002년 사이의 변화, 2002년과 2005년 사이의 변화로 나누어 가구특성별로 분석한다.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불평등도는 1999년 0.31239에서 2002년 0.33694로 7.86%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0.30722로 2002년에 비해 8.82%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체불평등도의 변화는 1999년과 2002년 사이 0.0246만큼 증가하였으며, 2002년과 2005년 사이 0.0297만큼 감소하였다. 이를 소득불평등도 자체의 변화(순효과), 집단구성 비율의 변화, 그리고 집단간 상대소득의 변화별로 분해한 것이 아래 <표 7>이다.

<표 7>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해

	구분	전체변화	순효과	집단구성 변화		집단간 상대소득변화
			A항	B항	C항	D항
가구주 연령	1999-2002	24.55	14.17	14.15	2.23	-6.00
	2002-2005	-29.72	-38.15	3.03	0.61	4.83
가구주 성별	1999-2002	24.55	20.19	1.13	0.39	2.84
	2002-2005	-29.72	-34.20	6.20	2.02	-3.70
가구주 학력	1999-2002	24.55	35.18	-1.10	-0.35	-9.15
	2002-2005	-29.72	-28.24	-6.56	0.00	5.09
취업자 수	1999-2002	24.55	36.22	-19.77	-2.51	10.44
	2002-2005	-29.72	-35.13	2.02	2.97	0.43

주: 원래 값 $\times 1,000$

먼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자. 가구주 연령의 경우 소득불평등 변화의 거의 대부분이 집단내 불평등의 변화(A항과 B항)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C항과 D항)가 전체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즉, 가구주 연령의 특성에서 볼 때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순효과로 표시되고 있는 집단별 소득불평등 자체의 변화와 집단구성 비율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앞의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과 2002년 사이 20대와 60대의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또한 이 연령대별 집단의 비율이 1999년에 비해 2002년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D항)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을 크지 않다.

가구의 성별 불평등의 변화 또한 집단별 소득불평등 자체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구주 학력수준별 불평등의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가구주 학력수준별 불평등 변화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D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의 영향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자수별 불평등의 변화는 가구주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특성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의 특징은 집단별 소득불평등 자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구성비율 변화의 영향 또는 음(-)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의 영향이 양(+)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02년과 2005년 사이의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서도 집단별 소득불평등도 자체의 변화(A항)가 전체 변화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 중 가구주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Mookherjee-Shorrocks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Jenkins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Mookherjee-Shorrocks은 1965년부터 1980년까지의 영국의 가구소비조사(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불평등도와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인트로피지수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수평균편차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을 기간으로 한 네개의 주기에서 전체 불평등도의 변화의 50% 이상이 소위 연령효과(본 연구에서는 C항과 D항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는 집단간 불평등도의 변화의 합)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Jenkins는 영국 가구소비 조사 자료 중 1971년부터 1986년까지 5년 주기의 4개년(1971, 1976, 1981, 1986)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Mookherjee-Shorrocks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enkins의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같이 소득불평등도의 대부분은 집단내 불평등도에 기인하여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또한 집단내 불평등도의 변화로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1999년, 2002년, 2005년을 선택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특성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1999년보다 2002년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불평등 지표인 대수편차평균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수편차평균을 소득불평등 지수로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집단간 소득불평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90%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별 소득불평등의 경우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12-16%로 학력별 소득격차가 다른 가구 특성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9년에 비해 2002년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는 가구주

연령이 20대 이하, 60대 이상인 가구에 기인한다. 2005년에는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었으나 2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가구주 학력별 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내 불평등은 중학교 이하 가구주 집단의 경우 악화되었으며 집단간 불평등은 2005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소득 하락으로 인해 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 수에 기초한 분석 결과 2002년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내 소득불평등은 상승하여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악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실업자는 늘어났으나 이들간의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업자의 평균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가구주 연령과 취업자 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외하고서는 순효과(A항)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은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Jenkins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i) 집단간 보다는 집단내 소득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ii) 가구주 학력별 집단간 소득불평등이 가장 크게 도출됨으로써 학력별 소득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하고, iii) 연령별로는 청년 가구주에 대한 대책(청년 일자리 창출)과 60대 이상 가구주에 대한 정책으로 이들을 위한 정년연장이나 재취업 등이 필요하며, iv) 무한 경쟁 시대에 실업이 더욱 늘 수 있으므로 좀 더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역이나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한 분석 등이 있는데 지역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지역경제의 동향이나 추이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구성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최근 가구구성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편모나 편부 등 1인 부모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흥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으나 국제적인 기준, 예를 들면 가처분소득 또는 시장소득에 기초한 분석 또한 분석 결과의 다양성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성용·이계임(2002), “농가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분석,” 『농촌경제』, 25권 4호
- 김진욱·정의철(2005),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한 소득불평등 측정 방법』, 통계청
- 정진호 외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02-04, 한국노동연구원
- 여유진 외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1999), 『經濟危機에 따른 貧困水準 및 所得不平等 變化와 政策方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Jenkins, S. P. (1991), "The Measurement of Income Inequality", in L. Osberg (ed.), *Economic Inequality and Poverty: International Perspective*, M. E. Sharpe, New York.
- _____ (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86," *Economica*, 62: 29-63.
- Kim, G. (1994), *Distribution Equitable et Bien-Etre Social - Approches Théorique et Empirique sur Données Individuelles de la Corée du Sud-*, Université de Paris I, Ph. D. Dissertation.
- Mookherjee, D. and A. F. Shorrocks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Economic Journal*, vol. 92.